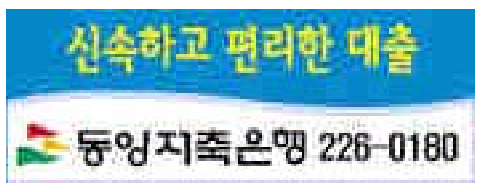

光州日報 Weekend

제1819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0월 25일 (음력 9월 27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5(土)	26(日)
구름 조금 8/21℃	구름 많음 10/20℃

News

- 전남대병원 분만비 최고 ②
- '철통 보안' 광주과기원 ③
- 내일부터 한국시리즈 ⑱

Books

- 코엘료 '흐르는 강물처럼' ⑭

Entertainment

- 軍 뮤지컬 광주 공연 ⑧

- 스크린 '파격 사랑' 뜬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재첩 ⑬

주가 1,000 붕괴 금융시장 대공황

코스닥도 300 무너져…환율은 15원 상승

코스피지수 1,000선이 끝내 붕괴되고 코스닥지수도 역사상 처음으로 3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증시가 대공황 상태에 빠져 들었다. 주가 대폭락 여파로 원·달러 환율도 급등, 1,420선으로 뛰어 올랐고 원·엔 환율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의 '패닉(공황)'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10.96포인트(10.57%) 폭락한 938.75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가 1,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5년 6월29일 999.08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1989년 3월31일 종가기준 1,000선을 처음 돌파했던 코스피지수는 작년 7월25일 2,000선을 돌파하고 10월31일 2,064.85로 고점을 찍은 후 1년 만에 1,100포인트를 내줬다.

코스피시장에선 외국인이 2천782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폭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4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개인도 795억원을 순매도해 투매에 동참했으며, 연기금이 3천600억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폭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2.27포인트(10.45%) 폭락한 276.68로 장을 마감해 300선을 내주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오후 1시15분에는 코스닥지수가 10%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지속돼 20분간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 영향으로 전날보다 달러당 15.20원 상승한 1,42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장 중 1,460원 선까지 폭등하기도 했지만 당국의 개입으로 상승폭을 줄였다.

그러나 4거래일간 109원 급등하면서 1998년 6월16일 1,430.00원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엔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전날보다 100엔당 53.78원 폭등한 1,495.01원을 기록해 1996년 말 원·엔 고시환율 집계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증시 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금융이 갖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이나 국고채 등을 한은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파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습지전문가들 순천만 생태 투어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기념 국제습지연대 아시아지역회의에 참가중인 국내외 습지전문가들이 24일 순천만 탐조와 생태투어에 나서, 아름다운 순천만을 배경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韓·日 셔틀외교 복원…12월 정상회담

금융위기 극복 공조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독도 사태로 중단된 정상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12월 중순께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한·중·일과 ASEAN(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한·일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과 양국간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시로 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키로 했으며,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일간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선 일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콘텐츠진흥원 나주 이전 재검토"

유인촌 문광장관 국감서 "추가 협의 진행"
지난 8월 "무조건 내려간다" 약속 뒤집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나주 혁신도시 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이전 계획을 묻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 계획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8월 12일 국회 공기업 대책 특위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나주 이전을 확약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유 장관은 통폐합이 예상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방 이전을 묻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질문에 "(혁신도시 이전 계획이 잡혀있는) 문광부 산하기관은 무조건 내려간다"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과 통폐합 된 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임직원 및 자산 규모가 당초보다 3배 이상 커지는 것은 물론 인력 고용, 관련 기업들의 동반 이전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 당시만 해도 그 (CT연구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며 "문화콘텐츠진흥원과 CT연구원의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많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잘 조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CT연구원의 광주 설립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두돼 왔고, 이와 관계 없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의 혁신도시 이전은 정부가 수차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확약한 바 있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관 통폐합을 빌미로 지역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수도권 인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와관련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정부기관들이 편법으로 신설 기관 설립이나 기관통합 등을 통해 이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